

급식실 노동자, 이대로는 위험하다

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실 노동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3,1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평균 8.2시간,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은 평균 11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공공기관 평균 65.9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식사를 제시간에 공급해야 하는 까닭에 노동자들은 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 일이 많아 쫓기며 일하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6.2%였으며, 손과 손목 통증을 겪은 응답자는 96.3%에 달했다. 통증의 빈도나 정도가 근골격계질환 위험 기준(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측정) 이상이었지만, 병가를 받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1인당 급식 인원수

학교 급식실 노동자



114.5명

공공기관 급식실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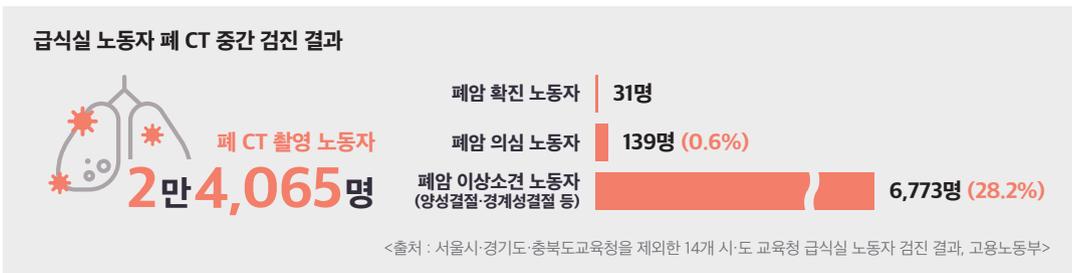
65.9명

<출처 : 「학교 급식실 노동자 작업조건 실태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 연구보고서」 (민주노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건강한 노동세상,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공동 연구, 2022)>

골병드는 급식실 노동자

그동안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돼 있었다. 2004년에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노동자 1인당 급식 인원수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노동환경연구소가 급식실 노동자 6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576명(95.8%)이 근골격계질환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급식실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 무렵 불거진 문제가 폐암이었다. 2018년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부터인데, 2021년 2월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는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해 같은 해 12월 폐 CT 촬영을 진행했다.



학교 급식실 떠나는 노동자들

급식실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 폐암뿐 아니라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 이들은 수시로 불에 데고, 조리기구에 베이고, 또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안전 보호구가 필수지만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른 위생복, 위생 장화 등은 노동자의 신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퇴사자 수가 급증한 것은 열악한 작업환경의 또 다른 방증으로, 자발적 퇴

사자는 2020년 1,328명, 2021년 2,051명, 2022년 3,016명에 이른다. 신규 채용도 쉽지 않다. 지난해 채용 미달률은 평균 21.7%로, 강원 지역의 경우는 전원 미달이었다. 퇴사 급증과 충원 미달은 급식실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이 된다. 노동자 1인당 적정 급식 인원 및 조리휴대 방안 등을 비롯해 화상과 베임 등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

